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8, 마가복음 4:1-34, 비유에 관하여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1-34, 비유에 대한 세션 8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세 장에서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예수가 공생활에서 행한 행동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다양한 기적, 엑소시즘, 대립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의 특정 형태인 비유로 조금 옮겨갑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 중 하나는, 전형적인 마가복음의 비유에서, 그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의 사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 고안된 더 많은 가르침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슷한 것을 하는데, 이 비유들을 취해서 주로 한 장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하고,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그의 가르침의 특정 형태인 비유로 조금 옮겨갑니다.

그런 이유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 전에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 사용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마도 그의 가르침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의 비유에 대해서는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겨자씨. 이런 용어들은 우리의 속어,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회나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칭찬이거나 탕자의 귀환인데, 이는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스노드그래스, 우화에 대한 훌륭한 작업을 하는 스노드그래스 교수는 *Stories with Intent*라는 책을 썼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합니다.

예수가 모든 신학자가 자신의 생각을 쏟아붓는 그릇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비유는 그들이 종종 쏟아붓는 데 사용하는 투수입니다. 요점은 비유에는 예수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는 진입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효과적입니다.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서사로서, 그것은 사람이 어떤 생각에 직면하고, 그 생각에 몰두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것은 진실이 이야기로 포장된 특정한 담론 형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좋은 설교를 생각합니다. 종종 좋은 설교는 진실이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예시를 가지고 있거나, 이야기로 진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실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화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교사와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간접적인 경로가 있고, 우화를 하는 군중이 있습니다.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며, 진술을 하면 저항이 생깁니다. 거의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미국 북동부의 뉴잉글랜드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의심과 회의주의가 미덕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말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다른 것을 합니다. 이야기가 뒷문으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키르케고르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진실을 말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겐 덜 공격적이거나 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확장된 비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우화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장된 비유입니다.

그것은 수사적 요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의 우화는 대부분 공통된 참조 대상을 가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왕국의 본질과 질 또는 특성을 설명하거나 적어도 하나님 왕국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1세기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은 1세기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21세기적 이해를 쏟아붓지 않고 우화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꽤 직설적이고, 어떤 것은 미묘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양성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그리고 대부분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화조차도 뿌리 없는 지식이 아니다

. 그들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듣는 사람과 상호 작용한다.

이제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비유의 해석을 살펴볼 때, 저는 우리가 최근 몇 세기 동안 두 가지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9세기 말까지 비유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해석가들의 경향은 비유를 우화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비유의 여러 요소를 무언가를 상징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에 대한 독해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반드시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예수의 의도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우화적 접근 방식은 예수 자신에게서 어느 정도 뿌리를 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몇 가지 비유는 예수께서 상징과 의미를 매우 많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분은 대표적인 의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우화적 접근 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모든 비유에 대한 해석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우화적 접근이 필요한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공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19세기 말까지 이러한 우화적 경향이 성경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가정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말했을 법한 것, 우화적 의미, 즉 다른 요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의미, 윤리적 접근 방식, 즉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거나 이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천상의 관념, 즉 영적 존재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의 이 네 가지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수세기 동안 우화적 이해를 포함한 과정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화가

경쟁 우화를 매우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경쟁 우화는 수용될 수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다양한 우화적 해석이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접근 방식인 듯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 세기 동안 비유에 대한 해석은 비유를 우화화하여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등장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현대 학자들이 우화화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아돌프 울리히는 단순한 갈릴리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가르쳤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계몽주의에 대한 반응의 시작이었고, 더 큰 우화적 가르침을 허용하는 방법을 가진 교사로서의 예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길고 끌어낸 우화는 이것이 교회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매우 단순한 비유, 본질적으로 더 속담처럼 보이는 비유는 단순한 갈릴리 사람에게는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Julicher의 주장이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더라도 비유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우화화와 우화화나 우화적 방법을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의도의 일부로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 논쟁이 비유가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요소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의미할까?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을까? 대응 관계가 있다면, 누가 그 대응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독자가 그 대응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예수가 그 대응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여기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유란 무엇일까? 모든 비유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실, 모든 비유를 포괄하기에 너무 광범위한 정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우화는 그 자체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화가 천상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라는 정의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많은 우화는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예증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우화는 은유입니다.

일부는 비유이지만, 어떤 우화는 그 이상을 합니다. 생생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매우 평범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인 케네스 베일리는 아마도 내가 들어본 우화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를 제공한 것 같다. 그는 그것을 진짜 두꺼비가 있는 상상의 정원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든다.

저는 진짜 두꺼비가 있는 상상의 정원이라는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마음속에 우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며, 우화가 하려는 것이 바로 청중의 마음속에 허구적이면서도 상상적인 동시에 진실인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화는 생각과 고려를 촉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화에서 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우화는 아니지만, 반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행동, 특히 신이나 예수에 대한 행동을 자극하고 촉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화 전반에 걸쳐 그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강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하거나 설득하는 데 사용되는 확장된 비유로서의 우화라는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비유로서, 우화가 쉽게 우화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말하고 있는 것과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 사이에 어떤 종류의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유형의 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유, 확장된 비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줄거리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설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우화는 전체 우화가 질문인 질문 우화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를, 등등, 그런 우화가 다루는 형태는 종종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의문 우화는 독자에게 종종 '아니오'로 질문에 답하도록 강요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우화 속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광범위하고, 줄거리가 있고, 특정 사건을 서술하고, 종종 문제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우화들이 있습니다.

대개 해결책이 시작되는 곳을 알려주는 대화가 있습니다. 일부 우화는 참조를 매우 많이 숨깁니다. 다시 말해, 우화는 독자가 이야기가 전해진 내용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지만, 독자는 사실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유형의 우화도 많이 있습니다. 매우 흔한 유형은 "얼마나 더" 유형인데, 이는 예수의 가르침과 제2 성전 유대교에서 모두 흔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유형의 우화입니다. 우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화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형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화는 매우 다른 구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우화는 여러 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이는 우리가 우화의 어떤 특성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우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것들이 종종 간결하고, 때로는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종종 제외합니다. 우화는 더 큰 이야기에서도 매우 얇습니다. 우화에는 두꺼운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동기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화 속의 특정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거의 알 수 없지만, 가끔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같은 장면에 두 개 이상의 그룹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매우 단순한 구조이며, 종종 균형이 맞습니다. 우화는 주로 인간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를 들어 이솝 우화에서는 동물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화는 대부분 인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인간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용한 거울이 됩니다. 허구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사현실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야기의 일부인 극단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유가 답하려고 하는 질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유가 “하나님의 왕국은... 과 같다”로 시작할 때, 그 대답을 이끄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화는 종종 예상치 못한 요소나 반전의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요소를 보려면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 종종 놀라운 순간은 그것이 전해지는 맥락에서 비롯된다.

매우 자주 중요한 문제는 끝에 있습니다. 비유의 절정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대개 끝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항상 신과 그의 왕국에 대한 신중심적입니다.

그 안에는 구약성서에 대한 암시가 자주 나올 것입니다. 종종 비유는 개별적인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님의 왕국이 비유와 같다는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모든 개인을 우화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전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길을 잃은 여자가 대신 찾아다니며 미친 듯이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가 이걸 상징하고, 여자가 이걸 상징하고, 집이 이걸 상징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전체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우화에는 정확성이 있습니다. 우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우는 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비유는 우리가 비유에 실시간을 부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유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글썄요, 하인이 도착하고 보고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야 했고, 갑자기 우리는 언급된 내용 대신 빠진 내용에 대해 큰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비유가 예수님의 가르침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비유적이지 않은 진술에서 말한 것과 비유 사이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비유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아마도 섬세하고 위험한 입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일관된 교사였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유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몇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비유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 모음집이 있는 마가복음 4장을 볼 때, 저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 21절에서 34절까지의 비유 몇 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하나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몇 가지 하이라이트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연히도 저는 항상 그것이 잘못된 명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사람 보다 토양과 관련이 적지만, 교회 역사의 출판사들은 모두 그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중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는 배를 타고 호수에 띄웠고, 해안을 따라 있던 사람들은 물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가 복음에서 본 것과 일치합니다. 즉 교사로서의 인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의 설정은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요약 진술에 도달합니다. 그는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그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가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얇아서 빨리 돌아났지만, 해가 뜨자 식물은 타들어가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습니다. 다른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 식물을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씨앗은 좋은 흙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라서 자라서 작물을 맺었고, 30배, 60배, 심지어 100배로 번식했습니다. 처음 여덟 구절. 그러니까 여기 처음 여덟 구절은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을 묘사합니다.

흥미롭네요. 팔레스타인 농업 관행을 정확히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비유이고 준비된 토양과 준비되지 않은 토양에 떨어지는 씨앗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억지로 이해시키려는 시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화의 의미는 외부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은 씨앗이고, 같은 뿌리는 사람 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 유일한 변수는 흙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9절, 수확량입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수확이 아닙니다. 30, 60, 심지어 100배입니다. 확실히 풍부한 수확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조금 떠올리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삭에게 백 배의 풍성한 수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에는 아마도 암시나 반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비유 다음에, 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예레미야 5:21과 에스겔 12:2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진술의 의미는 널리 논쟁되었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 영적인 귀를 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조차도 그 옵션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것의 맥락은 군중에게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왕국과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말해진다고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영적인 수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두 구절에도 사람들이 반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과 거의 의도적인 은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더 일치하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가 군중에게

이것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10절을 다시 살펴보는데, 그가 혼자였을 때, 다시 군중 속에 있지 않았을 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12가지, 이것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고려하시고 그와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택하신 1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가지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는 12가지가 아닌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비유에 대해 물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신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말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유를 말하는데, 저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신비로운 무언가나 이상한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가 비밀이나 신비가 드러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이 이제 공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보통 구약성경에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고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복음이 민족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밝혀지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예수님의 도래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와 제자, 외부인 사이에 끊임없는 내부 집단, 외부 집단의 구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외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말해졌습니다.

그래서 ,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고유하게 부여되는 해석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가장 논란이 많은 진술 중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12

절에서, 그들은 항상 보고는 있지만 결코 깨닫지 못하고, 항상 듣고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서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제 이 언어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논쟁은, 질문은, 예수께서 외부인이 내부인이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사야의 언급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의도하시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있고, 이사야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의 우화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보호를 제거하셨고, 이제 아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경고는 두 가지 이유로 귀머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이미 입증된 불충실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의 불충실함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의 거부에 응답하시고, 그런 다음 그의 목적과 심판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의 거부를 굳건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마가복음에서 이미 조금 이야기했고, 복음서 앞부분에서 나온 강경한 아이디어는 물론 고전적인 예인 파라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박해졌고, 강박하고 완고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런 다음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증명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출하시는 분으로 증명되도록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거부한 데서 비롯된 심판의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종교적 지도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의 구절이 이미 그를 거부한 집단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엘제불에 대한 논란에서 일찍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거부는 굳어진 현실이 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거부는 십자가로 가는 여정의 일부이며,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대한 이 매우 어려운 구절을 살펴보면, 그것은 실제로 누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는 알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고,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오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비유는 예수가 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또 다른 방식이며,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가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 자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제 생각에 그들은 제자들이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농부는 말씀을 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므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걱정, 부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들어와 말씀을 질식시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땅에 심은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뿌린 것의 삼십 배, 육십 배, 심지어 백 배의 수확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모든 다른 생각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설명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시는데, 잘못된 뿌리는 사람 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토양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설명 중 일부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열렬하게 예수를 따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떨어져 나가는지 설명하려는 그림을 만듭니다. 저는 거기에 암시가 있고, 제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받지만 문제가 생기면 비틀거립니다.

우리는 수난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반에 걸쳐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좋은 토양의 증거는 지속적인 열매이며, 이 아이디어에서 그것은 충실함과 헌신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 34절로 넘어갑니다 .

우리는 일련의 우화를 접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4:21~22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릇이나 침대 아래에 두기 위해 등잔을 가져 오느냐 ?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지 않느냐?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다시 그 진술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등잔대 위의 등잔 비유가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입니다.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루가 복음에서 숨겨진 것의 목적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루가 복음의 강조점은 지금 숨겨진 것이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숨겨진 것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숨겨진 것은 무엇이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켄 우화에는 예수께서 사물을 숨겨서 드러나게 하려는 신성한 의도를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물을 숨겨두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계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와 마가가 반드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비유, 비슷한 비유를 다른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은 매우, 매우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마 30절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말할까요? 또는 어떤 비유로 그것을 설명할까요? 그것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땅에 심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심으면 모든 정원 식물 중 가장 큰 식물이 되고, 가지가 너무 커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그림 비유 중 하나와 같습니다. 글썄요, 강조점은, 제 생각에는, 가지와 공중의 새에 대한 언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커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위대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한다면 매우, 매우 이상한 우화가 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겨자씨 덩굴이나

심지어 겨자씨 나무를 보면, 큰 삼나무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화가 하나님의 왕국의 크기와 위대함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아마도 그것이 더 가능성 있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실제로 그 시작의 가장 작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씨앗 중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글썄요, 기술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예수가 틀렸을까요? 그는 자신의 씨앗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요점이 아니고, 정확성이 아니라, 겨자씨가 극히 작은 씨앗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불길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나무와 같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물론 우리는 이미 보았지만, 그런 다음 자라서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비유, 33절과 34절에서 우리는 요약된 진술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사한 비유를 통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에서 비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자들과 혼자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비유적 가르침이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4장과 마가복음의 나머지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1-34, 비유에 대한 8번째 세션입니다.